

# 대한제국기 종두의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박윤재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연구조교수, 한국근대사 전공

wowbbona@hanmail.net

I. 머리말

II. 우두의사 양성과 종두의양성소 규정 반포

III. 찬화병원과 종두의양성소 설립

IV. 졸업생 배출과 우두사업의 전국화

V. 의학교 설립과 종두의양성소

VI. 맺음말

부록: 종두의양성소 졸업생 경력

## I. 머리말

일제가 침략을 본격화하던 1908년 한 언론은 의병들이 보인 특이한 행동을 전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 의사들이 각 지방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우두를 접종해 주고 있었는데, 의병들은 이들 의사를 만나더라도 “일호(一毫)도 이해(貽害)치 아니” 하였다.<sup>1)</sup> 즉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의병들이 그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일본인 의사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우두 때문이었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완쾌된다 해도 얼굴에 곰보자국을 남기던 두창으로부터 조선의 아이들을 구해준다는 점에서 우두는 ‘적’인 일본인 의사들조차 용서해 줄 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우두법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계기는 1876년 개항을 통해 찾아왔다. 외국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하나로 우두법이 수용되었다.<sup>2)</sup> 하지만 수용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1888년 제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헤론(John W. Heron)은 조선에서 “좋은 백신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sup>3)</sup>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01년 역시 제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선교 본부에 보낸 활동보고서에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지난 다섯 달 반의 일 중 백신 접종은 오직 한 건이 있었다. 이것은 자격증을 받은 종두의에 의해 엄청난 수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것에 분명히 기인한다.”<sup>4)</sup> 에비슨의 관찰은 1890년대를 지나면서 공인 종두의에 의해 우두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글은 에비슨이 다소 놀랍게 바라본 우두법의 확산 과정을 살펴보는 하나의 시도로서 1897년 설립된 종두의양성소(種痘醫養成所)의 활동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독립적인 연구 논문은 없지만, 우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중앙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후루시로 바이케이(古城梅溪)가 관립 의학교의 초대 교사

1) 《황성신문》, 「의지제중(義智濟衆)」, 1908년 2월 19일자.

2) 김두중, 『한국의학사』(탐구당, 1993), 476-479쪽.

3)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쿠파출판사, 2007), 128쪽.

4)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 『延世醫史學』 4권 3호(2000), 221쪽.

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종두의양성소는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한국 근대의학사를 개괄하는 선행 연구들은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종두의양성소를 주요한 소재로 취급하면서 설립과 활동, 나아가 그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sup>5)</sup>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미와 성격에 대한 언급이다. 한 연구는 종두의양성소가 “의학교의 관계가 마련되면서 의학교의 한 학과로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종두의양성소가 1899년 설립된 관립 의학교의 전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연구는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이 “의학교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시기 보건의료의 중요한 인력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종두의양성소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제의 정략의 일환”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sup>7)</sup>

졸업생들이 전국적으로 파견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후루시로가 관립 의학교의 초대 교사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일본 신문과 우두서적 등 자료의 보완을 통해 종두의양성소의 설립과 활동을 복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기존 연구의 주장들이 지니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다른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검토를 위해 이 글은 졸업생들의 활동과 서양의학에서 우두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종두의양성소가 우두법의 전국적 체계화에 기여했다는 점과 대한제국 의학체계의 중심축이 우두에서 의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II. 우두의사 양성과 종두의양성소 규정 반포

개항 후 조선에 우두법이 수용되는 경로는 다양했다. 지석영(池錫永)이 일본 군의를 통해 우두법을 습득했다면, 이재하(李在夏), 최창진(崔昌鎭)은 중국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우두법을 조선에 도입하였다. 지석영이

5)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아카데미아, 1995), 126-127쪽;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 1997), 204-207쪽.

6) 奇昌德, 위의 책, 127쪽.

7) 신동원, 위의 책, 206-207쪽.

다른 수용자들과 달랐던 점은 수신사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는 데 있었다.<sup>8)</sup>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된 우두법은 1880년대 지방기구의 노력을 통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 전라도 어사 박영교(朴泳敎)의 주도로 전주에 우두국이 설치되자 지석영은 그곳에서 전라도 일원의 자제를 모아 우두법을 교수하였다.<sup>9)</sup> 1883년에는 충청도 어사 이용호(李容鎬)에 의해 공주에 설치된 우두국에서 경상도 출신의 의원(醫員)이 우두법을 교수하였다.<sup>10)</sup>

우두법은 18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고 시술되기 시작했다. 1885년 중앙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각 도의 우두교수관, 각 군읍의 우두의사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이 형성되면서 우두법 시행이 체계화되었고, 1890년이 되어서는 그 범위가 전국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우두의사들은 우두교수관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시술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독점권 인정은 근대적 전문직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하지만 서양문물에 대한 반감, 무당 등 기존에 두창을 관리하던 세력의 반발, 우두의사의 횡포, 수혜자 부담의 재원 조달 방법 등으로 인해 우두법 시행이 전국화된 1890년 바로 그해, 우두의사의 자격증이 회수되고 우두국이 철폐되었다.<sup>11)</sup>

1894년 갑오개혁은 우두법 시술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이루어지는 계기였다. 의료 분야를 관할하는 위생국이 내부에 설치되었고, 1895년 우두법의 시행을 법제화한 ‘종두규칙(種痘規則)’이 반포되었다. 그 규칙의 반포를 요청하는 청의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두법의 효과에 대한 조선정부의 확신은 분명하였다. “차대환화(此大患禍)에 대호야 기(其) 방어 구홀 호는 방법이 우두종염(牛痘種染) 아니면 다시 업시몬 중개명증(衆皆明證) 호는 바”라고, 즉 두창이라는 재앙을 막을 방법은 우두법 이외에 없음은 모두가 아는 바라고 명시한 것이었다. 국가의 개입도 필요했다. “빈한호 인민은 차술(此術)의 이호(利好)호줄 지(知)호고 생활에 인호야 행치못호는 자 다(多)”하기 때문이었다. 우두법의 효용을 알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빈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거관(巨

8)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2권 2호(2000), 154쪽.

9) 기창덕, 「池錫永 先生の 生涯」, 『松村 池錫永』(아카데미아, 1994), 30-31쪽.

10) 신동원, 위의 책, 63쪽.

11) 신동원, 위의 책, 108-116쪽.

款)을 비(費)하여야도 행(行)하(可)하였다.<sup>12)</sup> 우두법의 확산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우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두규칙을 통해 반포되었다. 종두규칙은 접종 대상으로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사이의 소아를 지정하였다. 성년이라도 우두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대상이 되었다. 두창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접종대상자는 나이나 유예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지정한 기일 내에 우두를 맞아야 했다. 우두 접종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해서는 20전 이상 50전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었다. 우두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군대나 경찰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sup>13)</sup> 이 종두규칙이 반포되면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에 의한 전 국민 대상의 강제접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두규칙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우두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종두의는 양성소의 졸업증서를 유(有)하여야 내부 시험을 경(經)하여야 인가를 득(得)한 외(外)에 종두술을 행(行)할 득(得)지 못”하도록 하였다. 단, 외국에서 의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제한 없이 우두를 시술할 수 있었다. 만일 무자격자로 우두를 시술할 경우에는 10원 이상 20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종두의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두규칙은 관찰사의 재량 아래 이미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두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유예조치를 두었다.<sup>14)</sup> 1890년 정부가 우두국을 철폐하면서 우두법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sup>15)</sup> 그 민간의 우두의사들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하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우두의사를 활용하는 조치는 말 그대로 유예조치였다. 이미 우두의사는 접종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전횡을 저질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었다.<sup>16)</sup> 물의를 일으킨 우두의사를 다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종두규칙은 종두의 활동의 전제로 “양성소의

12) 「種痘請議書」, 『議奏』 3(서울大學校 奎章閣, 1994), 288쪽.

13) 《官報》, 「種痘規則」, 1895년 10월 10일자.

14) 위와 같음.

15) 신동원, 위의 책, 107쪽.

16) 신동원, 위의 책, 112-116쪽.

졸업증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양성소’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우두제도에 걸맞은 새로운 우두의사를 육성하고자 한 조선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점종비 문제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우두의사가 아닌 새로운 ‘종두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였다.

종두규칙에서 언급된 ‘양성소’는 1895년 종두의양성소 설립을 청원하는 청의서에서 ‘종두의양성소’로 구체화되었다. 종두의양성소의 설립 이유는 분명했다. “종두규칙을 주하(奏下)하야 이위(已爲) 반포(反포)하얏스온 디 우금(于今) 실시가 되지못(不)흔 기술(其術)을 시(施)힐 자가 무(無)흔 유(由)였다.<sup>17)</sup> 즉 종두규칙이 반포되고 그 규칙에 따라 우두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술자들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우두의사들이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거치고 면허를 가진 일정한 수준의 시술자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두의양성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1895년 반포된 종두의양성소 규정에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두를 널리 시술하기 위해 내부 관할의 종두의양성소를 한성에 설치하며, 교직원으로 위생국 관원인 소장 1인, 교수 1인, 서기 1인을 두기로 하였다. 입학에 위한 자격으로 20세 이상, 입학시험 합격을 요구하였다. 입시과목은 한문작문·국문작문·사자(寫字)였다. 수학기간은 1개월이었으며, 학기말에 졸업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에 한해서 졸업증서를 주고 종두의적(種痘醫籍)에 등록하도록 하였다.<sup>18)</sup> 1880년대 중반 확립된 교육과 면허라는 전문직 구성의 요소들이 종두의양성소 규정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두의양성소의 설립은 각 지방 단위에서 우두의사를 양성하던 시책을 넘어 중앙 단위에서 종두의 양성을 시작하려는 조선정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의도는 종두의양성소의 위치를 한성으로 정하고, 종두의 교육과 시험의 주체를 각 지방에 파견하였던 우두교수관이 아닌 중앙의 내부로 격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종두의양성소가 서울에 설립되고, 이 기관의 졸업생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두법은 체계적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었다. 1880년대 우두법의 시행이 지식영과 같은 개인 그리고 어사가 주도하는 지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1890

17) 「種痘醫養成所 規程에 關한 請議書」, 『議奏』 3(서울大學校 奎章閣, 1994), 400쪽.

18) 《官報》, 「種痘醫養成所規程」, 1895년 11월 9일자.

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그 주체가 중앙 차원으로 단일화된 것이었다. 우두의 시술과 관련하여 일종의 중앙집권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법제적 차원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 III. 찬화병원과 종두의양성소 설립

조선정부는 1896년 종두의양성소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다. 내각에서 작성한 건양 원년 도 세입세출예산표에 따르면 내부 소관 세출 144만 6,630원 중 종두의양성비 1,368원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19)</sup> 하지만 아관파천으로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종두의양성소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sup>20)</sup>

관립으로 설립되었어야 할 종두의양성소는 사립병원인 찬화병원(贊化病院)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sup>21)</sup> 그 병원을 설립, 운영한 이는 일본인 의사 후루시로 바이케이였다. 후루시로는 1860년 일본 오이타(大分)현에서 태어나 1880년 3월 오이타현립의학교 겸 병원에 입학, 1883년 10월 졸업하였고, 1884년 2월 내무성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의술개업인 허장을 받았다.<sup>22)</sup> 이후 준텐도(順天堂)의원, 경시청 검역의 등으로 근무하던 그가 조선으로 건너온 시기는 1886년 5월이었다. 서울에 있던 일본공사관 부속 의사로 근무하기 위해서였다.<sup>23)</sup>

1883년 6월 일본공사관에서는 부속으로 의원을 설치하고 일본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인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부속 의원에 대한 평판은 높아 당시 언론은 의사로 활동하던 군의(軍醫)가

19) 『官報』, 「豫算」, 1896년 1월 20일자.

20) 갑오개혁 당시 정권은 1896년도 예산으로 6,706원과 1만 4,353원을 각각 의학교와 의학교 부속 병원의 설립비로 책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1897년 새롭게 수립된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학교 관련 예산을 백지화하였다. 반면 종두의양성소비 1,368원은 그대로 남았다.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해안, 2005), 118쪽; 즉 대한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의학교는 종두의양성소보다 장기적인 목표 아래 설립해야 할 대상이었다.

21) 이 의료기관을 부르는 이름으로 '찬화의원'과 '찬화병원'이 있다. 주로 설립 초기에 '찬화의원'이, 나중에 '찬화병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술의 일관성을 위해 후기에 사용된 '찬화병원'을 이 의료기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履歷書』, 日本 外務省史料館 所藏記號 3. 11. 1. … 7.

2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고성매계(古城梅溪)'.

거만한 태도가 없다며 칭찬하였고, 서양의학에 기초한 진료 수준도 높아 기묘한 효과를 보는 환자가 많다고 평하였다.<sup>24)</sup> 1880년대 주로 개항장에 설립되었던 일본 병원들은 치료를 통해 조선인에게 일본에 대한 우호감과 경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공사관 의원의 경우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였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조선인 의학생에 대한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서양의학을 통한 조선인 회유와 조선 내 기반 확보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sup>25)</sup>

그러나 공사관 부속 의원을 통해 조선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던 일본의 의도는 1885년 미국의 의료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이 조선정부의 지원 아래 제중원을 설립하면서 좌절되었다. 병원을 조선 진출의 기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더 이상 군의 파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6)</sup> 이후 일본공사관은 직원과 거류민 진료를 위해 알렌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알렌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면서 정확한 처방이 어려워지고, 부담해야 할 약가가 과대해지자 본국에 의사 파견을 재요청하게 되었다. 이때 파견된 의사가 후루시로였다. 후루시로는 관리는 아니었지만,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매달 80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sup>27)</sup> 2년 계약을 맺은 후루시로는 1888년 2년 연장 계약을 했고, 1891년 5월 공사관 부속 의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병원인 찬화병원을 개원하였다.<sup>28)</sup>

후루시로가 자신의 병원인 찬화병원에 부속으로 종두의양성소를 설립한 시기는 1896년 11월이었다.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한성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금회 본 양성소에서 종두의술을 ㄱ룻칠터히오니 우두종식술(牛痘種植術)을 전습(傳習)코자하는 의학학생은 일자(日字) 삼십일간으로써 졸업케하니 지원자는 내학(來學)

24) 《漢城旬報》, 「일본관의원」, 1884년 3월 18일자.

25) 박윤재, 위의 책, 90-91쪽.

26) 박윤재, 위의 책, 91쪽.

27) 「公使館附屬醫員再派ノ件ニ付上申」, 『韓國警察史』 5, 443쪽; 「公使館附屬醫員再派ノ件」, 『韓國警察史』 5, 446-449쪽.

28) 「古城開業醫契約繼續ノ件」, 『韓國警察史』 5, 461쪽; 한 자료에 따르면, 후루시로는 공사관 의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 병원인 찬화병원을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하였다. 《漢城新報》, 「贊化醫院の祝宴」, 1896년 4월 27일자. 이 기사를 신뢰한다면,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시간에 개인 진료활동을 펼치던 후루시로가 1891년부터 찬화병원에 전념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학시습 단 수업료를 요(要)치 아니함 경성 이현(泥峴) 찬화의원 내 종두의양성소<sup>29)</sup>

찬화병원 부속으로 종두의양성소를 개설하여 우두법을 교수하니 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찾아오라는 광고였다. 수업기간은 30일, 수업료는 없었다. 한글로 광고를 낸 것으로 보아 수업 대상은 조선인 학생이었다. 이 광고를 게재하면서 한성신보는 후루시로가 “공중을 유조할 경륜”으로 양성소를 개설한다고 해설하였다.<sup>30)</sup> 두창으로 고통받고 있던 조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양성소를 개설하였다는 해설이다.

후루시로 역시 양성소 설립 이유로 조선인에 대한 배려를 거론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 활용되는 우두법은 모두 낡은 것으로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조선인들은 접종 받기를 꺼리고 있었다. 그 결과는 요절(夭折)이었고, 다수의 사망이었다.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후루시로는 찬화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여가 시간에 우두법을 전수하였다. 하지만 구식의 우두법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 되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 학생들을 모아 본격적인 기술 전수를 하기 위해 종두의양성소를 설치하였다. 후루시로는 종두의양성소의 설립은 자신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겸양을 보였다. 개인의 힘이 아닌 우두법을 원하는 세상의 흐름이 만들었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러나 후루시로의 양성소 설립은 일본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1896년 7월 조선에 부임한 일본 공사 하라 다카시(原敬)는 아관파천 이후 약화된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병원 등 문화시설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었다.<sup>32)</sup> 양성소 설립이 추진되던 1896년 가을은 하라의 대한 정책이 표방된 이후였다. 일본인 병원이었던 한성병원 역시 종두의양성소의 설립이 추진되던 1896년 10월 부속으로 속성의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정원은 20명, 수업기간은 16개월이었다. 조선인들에게 “문명적 의술의 대요(大要)를 교수하여 한국인 일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33)</sup> 조선인에게 서양의학을 전수한다는 명목 아래 일본 병원

29) 《漢城新報》, 「廣告」, 1896년 11월 22일자.

30) 《漢城新報》, 「日醫傳術」, 1896년 11월 22일자.

31) 古城梅溪, 「序」, 『種痘新書』(학부 편집국, 1898), 3쪽.

32) 최덕수, 「하라 다카시의 ‘동화정책론’ 연구」,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II)』(아연출판부, 2007), 354쪽.

33) 《漢城新報》, 「慈惠院設立の計劃」, 1896년 10월 10일자.

들이 조선인 학생에 대한 의학교육을 시도한 것이었다.

1898년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들로 구성된 재정성일본인부인회는 기금을 모아 “한인 회유 방향에 힘”쓰고 있는 기관에 기부를 하였다. 그 대상에는 대일본해외교육회가 설립한 정성학당과 함께 한성병원, 종두의양성소가 포함되어 있었다.<sup>34)</sup> 일본인이 보기에 종두의양성소는 일본의 대한 정책을 보조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종두의양성소의 설립이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갑오개혁이 실패하면서 문화적인 방식의 조선 침투를 시도하는 일본에게 종두의양성소와 같은 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분명했다. 일본인이 주체가 되고 조선인이 객체가 되는 교육이 일본에 대한 우호감과 경외심을 높일 것도 분명했다.

종두의양성소 규정에서 교직원으로 위생국 직원을 규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두의양성소는 관립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찬화병원 부속 종두의양성소는 사립이었고,<sup>35)</sup> 다만 관련 부서인 내부와 학부의 승인을 받았다.<sup>36)</sup> 1897년 1회 졸업생 배출 당시에는 ‘내부 위생국 윤허 종두의양성소’라고 표현된 반면, 2회와 3회 졸업 당시에는 ‘학부 인허 종두의양성소’라고 적시된 점으로 보아 관할 부서가 내부에서 학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서의 승인을 받았던, 초기 규정과 달리 종두의 양성교육이 사립기관에서 이루어진 점은 분명하다. 사립기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국가에서 공인해 준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사립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을 인허라는 형식을 통해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정부가 양성소의 졸업생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경비 문제 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종두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두법이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용불부(經用不敷)”, 즉 재정 부족 때문에 널리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7)</sup> 조선정부는 이미 갑오개혁 단계부터 재정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고, 1897년

34) 문서제목 (26) 在京城 日本人婦人會에 助成金下賜 要求의 件(문서번호 機密第31號),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발송일 1898년 9월 14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35) 《독립신문》, 「치사편지」, 1899년 6월 12일자.

36) 《帝國新聞》, 1899년 1월 11일자.

37) 《皇城新聞》, 「각군종두(各郡種痘)」, 1899년 5월 4일자; 「漢城種痘司를 設置하고 官制를 頒布하는 請議書」, 『奏本』 4, 1996, 410쪽.

제국으로 출범한 대한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운영하던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미 북장회 선교부에 이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재정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38)</sup>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한제국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우두법의 보급을 위해 사적으로 종두의를 양성하던 후루시로의 활동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 기관을 인정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시간과 재산을 투자하면서 조선인 종두의를 양성하는 후루시로의 활동은 그에 대한 평가를 높여주었다.<sup>39)</sup> 나아가 종두의양성소가 대한제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대한제국의 관계는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 IV. 졸업생 배출과 우두사업의 전국화

1896년 11월로 예정되었던 종두의양성소의 개원은 잠시 지연되었다. 1897년 1월 후루시로가 30-40일 정도의 예정으로 일본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후루시로가 병원을 비운 사이 진료는 고다케(小竹) 군의가 대신 담당하였다.<sup>40)</sup> 광고대로라면 후루시로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시기는 1897년 봄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양성소의 수업은 정규화되었을 것이다.

종두의양성소에 입학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우두종식술(牛痘種植術)을 전습(傳習)”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내학(來學)”하라는 기사나 우두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품청장을 존고기 찬화병원 양성소로 보내고 와서 빅호라고 학부에서 각처에 고시”하였다는 기사가 그 예이다. 특히 입학지원서를 찬화병원 종두의양성소에 직접 보내라는 고시는 입학 사정과 관리 주체가 찬화병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41)</sup>

수업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후루시로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99년 제3회로 종두의양성소를 졸업한 고원식(高源植)의

38) 박형우, 『제중원』(몸과마음, 2002), 219-227쪽.

39) 《독립신문》, 「치사 편지」, 1899년 6월 12일자.

40) 《漢城新報》, 「廣告」, 1897년 1월 22일자.

41) 《漢城新報》, 「廣告」, 1896년 11월 22일자.

이력에 따르면, 그는 종두의양성소 입학 당일 부교사로 발령을 받았다.<sup>42)</sup> 그가 양성소 입학 전 일본인이 설립한 경성학당을 졸업한 사실로 추정하건대 통역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루시로가 『종두신서(種痘新書)』라는 교과서를 편찬한 이유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우두법 교수와 학습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 있었다.<sup>43)</sup>

『종두신서』는 종두의양성소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짐작하게 해준다. 1898년 2월 학부 편집부에서 편찬한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은 종두의 역사, 수두(獸痘), 두묘의 종류, 종두 방법, 종두의 경과, 병발병(併發病), 재종두(再種痘), 두묘보존법이다.<sup>44)</sup> 우두 시술과 관련된 모든 과정, 즉 우두 접종부터 두묘를 보관하는 방법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다만 두묘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시기에는 두묘의 제조와 우두의 시술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45)</sup>

종두의양성소 규정에 따르면, 양성소의 수업 기한은 1개월이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지켜지지는 않았다. 제2회 졸업생들의 이력을 보면 수업 기간은 4~8개월이었다. 3회 졸업생의 이력도 남아 있는데, 6~7개월이었다.<sup>46)</sup> 졸업생들의 입학 시기는 각자 다를지라도 교육 기간은 일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을 인정받아 졸업과 종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 입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sup>47)</sup>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동시에 졸업생으로 배출하

42) 『大韓帝國官員履歷書』(국사편찬위원회, 1971), 760쪽.

43) 古城梅溪, 앞의 책, 3쪽.

44) 古城梅溪, 앞의 책, 1-2쪽; 발간일은 1898년 2월이지만, 『종두신서』가 일반인에게 보급된 시기는 8월이었다. 《帝國新聞》 1898년 9월 30일자에 의하면 『종두신서』가 8월에 학부 편집국에서 발간되었고, 9월 29일 제국신문사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제국신문은 『종두신서』가 위생을 위해 매우 긴요하게 쓰일 책이라고 칭찬하면서, 일반인은 이 책을 널리 구하여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45) 1898년 4월 반포된 종두소세칙에 따르면 내부에 우두를 시술하는 종두소(種痘所)와 별도로 우두를 조제하는 종계소(種繼所)를 설치하였다. 《官報》, 「種痘所細則」, 1898년 4월 21일자.

46) 2회 졸업생인 박형래(朴馨來)의 경우 1897년 5월에 종두의양성소에 입학하여 동년 12월 16일 졸업하였고, 이응원(李應遠)은 1897년 5월 종두의양성소에 입학, 동년 12월 16일 졸업하였다. 심승덕(沈承德)의 경우 8월 4일 '이현(泥峴) 찬화병원'에 입학하여 11월 24일 종두의 업증(業證)을 받았고, 피병준(皮秉俊)은 1897년 5월 9일 종두의양성소에 입학, 동년 12월 졸업하였다. 3회 졸업생인 고원식(高源植)의 경우 1898년 10월 10일 종두의양성소에 입학하여 1899년 4월 9일 졸업증서를 받았고, 이공우(李公雨)는 1898년 11월 종두의양성소에 입학, 1899년 4월 9일 졸업하였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 87쪽, 211쪽, 369-370쪽, 448쪽, 689쪽, 760쪽.

47) 《帝國新聞》, 1898년 12월 8일자.

고 다시 입학생을 모집하였을 것이다.

종두의양성소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된 시기는 1897년 7월 10일이었다. 졸업생은 모두 10명이었고, 시험 성적에 따라 우등 2명, 급제 8명으로 나뉘었다. 우등과 급제를 포함한 시험 합격자에 대해 내부 위생국에서 인가를 함으로써 종두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sup>48)</sup> 1897년 11월에 우등 2명 급제 16명으로 이루어진 18명의 2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sup>49)</sup> 1899년 4월에 우등 9명 급제 44명으로 이루어진 53명의 3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sup>50)</sup> 10명, 18명, 53명으로 졸업생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3회 졸업생이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1897년 11월부터 1899년 4월에 이르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들이 동시에 졸업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높았다. 1899년 4월 9일 진행된 제3회 졸업식에는 궁내부 대신과 협판, 탁지부 대신과 협판, 탁지부 국장, 내부 위생국장, 판적국장, 의학교장 등 대한제국의 주요 관료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궁내부 대신과 학부는 각각 천 냥씩의 금일봉을 내렸고 내부에서는 『위생신문』, 종두기계, 종두침, 종두판, 탈지면 등을 내려 졸업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1)</sup> 우두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한제국이 교육과 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 공식적으로 탄생한 종두의들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가운데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우두법

48) “學事 內部衛生局允許種痘醫養成所醫生卒業試驗榜 優等二人 李謙來 高義駿 及第八人 李浩慶 金聖培 林浚相 金教植 金教珏 金益泳 李圭弼 李鴻來.” 『彙報』, 《관보》, 1897. 7. 10.

49) “學事 學部認許種痘醫養成所醫生卒業試驗榜 優等二人 李晚植 李世容 及第十六人 申明均 柳春秀 朴馨來 玄東翹 趙東顯 安世顯 李應遠 劉哲相 李寅植 柳興民 沈承憲 李喆鏞 劉文鍾 鄭海觀 崔相赫 皮秉俊 光武元年十一月二十四日.” 『彙報』, 《관보》, 1897. 11. 30.

50) “學部認許種痘醫養成所第三回醫士卒業試驗榜 優等九人 李潤善 高源植 金德準 李公雨 張鎮祖 池義燦 林天溪 高洪植 李載翊 及第四十四人 申宗熙 方春煥 崔鎮星 沈承薰 李熙敏 崔鍾萬 李昌烈 李永萬 金寬炯 朴旻秀 柳尙珪 金均明 趙鼎國 朴華鎮 元普常 洪顯相 李東彦 康弼祐 李承祚 李哲宇 朴遇用 方漢式 李東煥 李孝善 朴熙斌 李圭庸 金完培 尹鍾模 呂圭冕 劉觀熙 尹哲鉉 金相驥 全瑋鉉 金謂默 李敏教 洪星煥 朴泰勳 鄭尙教 徐邁淳 李鍾麟 宋永鎮 姜文熙 成樂春 金演泰 共五十三人.” 『彙報』, 《관보》, 1899. 4. 13; 제3회 졸업생 고원식의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全科優等第二卒業證書授與’였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 760쪽. 그의 이름이 관보에 두 번째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보의 순서는 성적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1) 《帝國新聞》, 1899년 4월 14일자.

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1898년 4월 반포된 ‘종두소세칙’에 따르면 서울의 전 지역을 5곳으로 나누고 그 지역마다 종두소를 두어 종두의로 하여금 우두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1899년에는 경비 절약을 목적으로 이 종두소들을 내부 병원의 관할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귀속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내부 병원의 의사들이 일반 진료와 우두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우두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부 위생국의 관할로 한성종두사를 별도로 설치하여 5서(署) 내의 종두사무를 시행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한성종두사의 설치로 대한제국의 우두사업은 독립적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sup>52)</sup>

1897년부터 배출된 졸업생들은 대한제국의 우두정책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80명이 넘는 졸업생들은 대한제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의 외곽인 한강, 서강, 왕십리에 설치된 종두소에 양성소 졸업생들을 파견해 우두 시술을 하도록 조치하였다.<sup>53)</sup> 나아가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우두법의 시행 범위가 지방까지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지방의 각 군의 관아에 종두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자신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54)</sup> 정부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자신들이 비용을 각출하여 우두법을 확산시키겠다고까지 하였다.<sup>55)</sup>

졸업생들의 요구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종두소를 공식적으로 설치하기는 힘들다고 변명하며, 우선 양성소 졸업생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56)</sup> 졸업생들을 지방으로 파견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1899년 6월 취해졌다. 대한제국 정부는 내부령으로 ‘각지방종두세칙(各地方種痘細則)’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전국 13도에 “종두 졸업한 인(人)”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sup>57)</sup> 우두법의 전국화를 실현하려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졸업생들이 각 지방에 종두사무위원으로 파견되면서 현실화되고 있었다.

52) 신동원, 앞의 책, 207-209쪽.

53) 《황성신문》, 1898년 10월 22일자.

54) 《황성신문》, 「정설향두(請設鄉痘)」, 1899년 4월 19일자.

55) 《帝國新聞》, 「학도청의」, 1899년 4월 28일자.

56) 《皇城新聞》, 「각군종두(各郡種痘)」, 1899년 5월 4일자.

57) 《官報》, 「各地方種痘細則」, 1899년 7월 1일자.

〈부록〉으로 정리한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의 이력에 따르면, 지방의 종두사무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1회 2명, 2회 9명, 3회 33명이었다. 1회 졸업생이 10명, 2회 졸업생이 18명, 3회 졸업생이 53명인 점을 감안하면, 1회의 20%, 2회의 50%, 3회의 62%가 지방의 우두사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총 졸업생 수 81명 중에는 44명, 즉 54%가 지방의 우두사업에 관계를 하였다.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은 대한제국기 우두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주체들이었다.

각 지방에 파견된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은 그 지방의 종두의를 인가함으로써 우두법의 정착을 도모하였다. 1899년 반포된 각지방종두세칙은 지방에 파견된 종두위원들이 기존 종두의들을 시험하여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sup>58)</sup> 사적으로 양성된 종두의를 대한제국이 인가하듯이 지방 종두사무위원들도 사적으로 양성된 종두의를 ‘종두인허원’으로 인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899년 10월 황해도 종두사무위원 고원식(高源植), 이창열(李昌烈)이 황해도 관찰부에 내부의 훈령을 전달하자 관찰사는 그 훈령에 따라 종두소를 설치하고 종두세칙을 반포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종두인허원을 시험하여 관하 각 군에 분파”하는 데도 관여하였다.<sup>59)</sup> 1880년대 우두교수관이 하던 역할을 1890년대 종두사무위원들이 담당한 것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공인을 받은 종두의였다는 점에서 이전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종두의 양성이 중앙 차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 V. 의학교 설립과 종두의양성소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교육의 주체였던 후루시로의 명망도 높아갔다. 1899년 제3회 졸업식에 즈음하여 한 언론은 후루시로가 조선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하여 종두의들을 양성한 점을 지목하며 그 명예가 치하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sup>61)</sup> 위생을 담당하

58) 위와 같음.

59) 《皇城新聞》, 「서도두무(西道痘務)」, 1899년 10월 13일자.

60) 우두사업이 체계화되었지만 종두의의 부족한 기술, 접종자 부담 원칙, 우두에 대한 편견 등은 효율적인 우두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광무연간을 지나면서 우두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나갔고, 조선의 기존 의료사업을 폄하하던 일제도 우두사업 만은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신동원, 앞의 책, 212-218쪽.

던 내부대신은 후루시로의 노력으로 조선인 중 두창의 피해를 면한 사람이 몇 천 명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편작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며 극찬을 하였다.<sup>62)</sup> 중두의양성소는 일본의 개원의였던 후루시로를 동양에서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는 편작과 같은 지위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후루시로의 실력이 극찬을 받을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후루시로가 졸업한 오이타현립의학교 겸 병원은 1880년 설립되어 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후 1888년 폐교되었다.<sup>63)</sup>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79년 서양식 의사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립병원에 의학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속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의 자질이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1882년 의학교 통칙을 반포하여 의학교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였다. 갑종의학교 입학자격은 초등중학교 졸업 이상, 수학기間は 4년 이상이었고, 을종의학교는 수학기間이 3년이었다. 기간이 긴 갑종의학교 졸업자에게는 시험 없이 의술개업을 허가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1887년 부현립 학교의 운영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하도록 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관립 의학교 5곳과 재정이 안정적인 공립 의학교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의학교는 모두 폐교되기에 이르렀다.<sup>64)</sup>

후루시로가 졸업한 오이타현립의학교 겸 병원은 정확히 위의 궤적에 따라 설립되고, 폐지되었다. 오이타현이 의학교를 설립한 1880년은 서양식 의사를 확대하려는 메이지 정부의 요구가 나온 바로 다음 해였고, 폐교된 1888년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1887년의 다음 해였기 때문이다. 후루시로의 재학기간이 3년이었던 점, 졸업 다음 해인 1884년 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점은 오이타현립의학교 겸 병원이 을종의학교였음을 알려준다. 즉 후루시로는 일본에서 의학교육제도가 정립되어 나가던 초창기에 의학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학기間이 짧은 을종의학교를 졸업하였다.

조선에서는 후루시로의 의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폄하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에 최고 학부로 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61) 《帝國新聞》, 1899년 4월 6일자.

62) 《독립신문》, 「치사 편지」, 1899년 6월 12일자.

63) <http://www.e-obs.com/heo/heodata/n251.htm>

64) 菅谷章, 『日本醫療制度史』(東京: 原書房, 1976), 56-60쪽.



본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65)</sup> 종두의들이 학습한 의료 기술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1개월의 학습기간은 간단한 기술을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학생들도 우두 학습에 전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회 졸업생인 고준식(高準植)의 경우 종두의양성소와 함께 우무학당(郵務學堂)을 동시에 다녔고, 1899년 4월과 6월 각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였다.<sup>66)</sup> 우두법이 정착되는 데 큰 공헌을 한 지식영도 종두의들의 실력이 높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종두인허원으로 활동하던 종두의들의 실력은 개인적으로 우두법을 습득한 사람들보다 높지 않았다. 종두인허원의 실력은 “출중흔 학술이 아니요 사두자(私痘者)와 거개 동일흔 식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사적으로 우두법을 학습한 사두자와 달리 공식적으로 접종비를 받을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었다.<sup>67)</sup>

그러나 양성소를 통해 가지게 된 명성은 학력에 대한 비판을 이기고 후루시로를 1899년 설립된 관립 의학교의 초대 교사로 만들 만큼 높았다. 의학교 교사 초빙을 둘러싸고 후루시로의 학력이 문제가 되자 그의 의료실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후루시로는 정부 고관의 단복고창(單腹鼓脹)을 치료해 주었을 뿐 아니라 떨어져나간 코를 다시 만드는 성형수술까지 성공시킬 정도로 기술이 뛰어나다는 의견이었다.<sup>68)</sup> 그뿐이 아니었다. 후루시로는 종두의양성소를 설립하여 몇 년에 걸쳐 우두법을 교육하였는데, 그 결과 서울에 설립된 관립 종두소의 의원들이 모두 후루시로의 제자들로 충원되었다. “외국 사림으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명예잇고 유공하기는 이 사림에서 더흔 의원”은 없었다.<sup>69)</sup> 외국 의사 중 가장 공적이 많은 의사로 후루시로를 지목한 것이었다. 학부에서 후루시로를 교사로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종두의양성소의 활동이었다.

후루시로가 의학교 교사로 임용되면서 종두의양성소는 자연스럽게

65) 《독립신문》, 「의학교사 연방」, 1899년 5월 11일자.

66) 『大韓帝國官員履歷書』, 409-410쪽. 고준식은 1899년 6월 우체사 주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 주로 우체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1906년 이후에는 감리서 주사, 농상공부 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67) 《皇城新聞》, 「醫院監의 意見(續)」, 1908년 3월 4일자.

68) 《독립신문》, 「의학교사 연방」, 1899년 5월 11일자.

69) 《帝國新聞》, 1899년 3월 9일자.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후루시로의 의학교 교사 임명은 의학교와 종두의양성소 사이의 연계성을 추정하게 하였다. 당시 언론 중 하나는 의학교 설립의 목적이 종두의 양성을 통한 우두법의 확산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지금 대한도 우두법을 시행코져 하여 의학교를 설치하고 각서에 우두사를 비설”한다는 것이었다.<sup>70)</sup> 이 기사는 종두의양성소가 의학교의 전신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1899년에 반포된 ‘의학교규칙’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 의학교에서 우두법을 교수한 것은 사실이다. 의학교 규칙에 따르면, 의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대상으로 각종 서양의학 과목과 함께 ‘종두’가 있었다.<sup>71)</sup> 하지만 종두는 16개 과목 중 1과목에 불과했다. 우두법이 서양의학의 상징처럼 간주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에 종두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의학교를 종두의양성소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종두의양성소와 의학교는 기관의 직접적 연계성보다는 대한제국 의학 체계의 발전의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874년 일본에서 반포된 종두규칙은 우두와 의학 사이의 관계 설정에 시사점을 준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우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었고, 그 주체는 의사였다. “종두술은 내외과 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금의 사정이 아직 그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우두법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면허를 주어 시술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과도기적으로 의사가 아닌 종두의가 우두를 접종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과도기적인 조치는 접종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종두의가 되려면 스승에게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지방 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은 검토 후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었다.<sup>72)</sup> 즉 일본의 종두규칙은 종두의가 서양의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한 직업임을 알려준다.

1899년 설립된 관립 의학교는 우두를 교과목의 하나로 학습하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이제 종두의가 아닌 의사로 전환하였다. 즉 의학교가 보인 모습은 의학이 통합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두와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의학이 서양의학을 의미한다

70) 《독립신문》, 「우두의 요건」, 1899년 4월 18일자.

71) 《官報》, 「醫學學校規則」, 1899년 7월 7일자.

72) 『醫制百年史(資料編)』(東京: 厚生省 醫務局, 1976), 234쪽.

면, 우두를 자신의 상징과 같이 이용하던 개항 직후의 상황에서 벗어나 서양의학이 그 자체로 정립되어 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두법의 상징처럼 간주되는 지식영이 의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사실 역시 우두에서 벗어나 서양의학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두의양성소는 의학체계의 내용이 우두에서 의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활동한 과도기적인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VI. 맺음말

1896년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던 종두의양성소는 1897년 봄 사립병원인 찬화병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종두의양성소를 설립, 운영한 이는 일본인 의사 후루시로 바이케이였다. 후루시로는 1891년 5월 일본공사관 부속 의사를 그만두고 개인 병원인 찬화병원을 개원하였다. 그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구식의 우두법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우두접종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우두법을 조선인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종두의양성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후루시로의 양성소 설립은 아관파천 이후 문화시설의 보급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려는 일본의 대한 정책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종두의양성소 입학에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는 않았고, 수업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은 후루시로가 편찬한 『종두신서』를 통해 집작할 수 있는데, 우두 접종부터 두묘를 보관하는 방법, 즉 우두 시술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기한은 1개월이었지만 대체로 4-8개월 정도 재학하였다. 하지만 교육 기간은 일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을 인정받아 졸업과 동시에 종두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두의양성소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된 시기는 1897년 7월이었고, 제2회는 1897년 11월, 제3회 졸업생은 1899년 4월에 배출되었다. 대한제국은 이들 졸업생을 서울과 지방에 파견하여 우두법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졸업생들은 서울의 외곽에 설치된 종두소와 함께 각 지방의 종두사무위원으로 파견되어 우두를 시술하였다. 나아가 각 지방에 파견된 졸업생들은 그 지방의 종두의를 인가함으로써 우두법의 정착을 도모하였다. 이런 활동은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종두의 양성이 중앙 차원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교육의 주체였던 후루시로의 명망도 높아져갔고, 그 명성으로 인해 그는 1899년 설립된 관립 의학교의 초대 교사가 될 수 있었다. 후루시로가 의학교 교사로 임용되면서 종두의양성소는 자연스럽게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후루시로의 의학교 교사 임명은 종두의양성소가 의학교와 연계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의학교에서 우두법을 교수하였다고 하여 두 기관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는 힘들다. 의학교의 설립은 서양의학이 우두를 상징처럼 이용하던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정립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두의양성소는 의학체계의 내용이 우두에서 의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활동한 과도기적인 교육기관이었다.

개항 이후 근대적 의학체계를 수립하려는 조선정부의 시도는 의료기관의 설립과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두법은 시기의 면에서나, 수용의 정도에서나, 조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의료정책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897년부터 1899년까지 활동한 종두의양성소는 그 정책의 추진이 험난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대한제국은 사립기관을 통해 양성된 종두의를 사후에 인가할 수밖에 없었고, 우두사업의 전국화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립 의학교의 설립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서양의학은 우두라는 상징적인 외피를 벗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해 가고 있었다.

## 부록

표-중주의양성소 졸업생 경력

이름	졸업	경력
李浩慶	제1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種痘司 醫師 임명
金聖培	제1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種痘司 醫師 임명, 1905년 3월 內部 廣濟院 醫師, 1907년 3월 內部 廣濟院 醫師 면관
林浚相	제1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廣濟院 醫師 임명
金敎植	제1회 급제	1899년 8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1900년 3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金敎珪	제1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899년 6월 내부 병원 기사 임명, 1900년 3월 내부 병원 기사 免官
金益泳	제1회 급제	1901년 9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8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1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晩植	제2회 우등	1899년 12월 忠淸南道 種痘所委員
李世容	제2회 우등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種痘司 書記 임명, 1901년 3월 內部 種痘司 書記 면관, 1902년 6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5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3년 7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10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申明均	제2회 급제	1899년 8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柳春秀	제2회 급제	1899년 12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0년 10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朴馨來	제2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種痘司 技手, 1901년 9월 견책, 1902년 6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3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7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9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4년 11월 漢城種痘司 醫師 임명, 1905년 3월 內部 廣濟院 醫師 임명, 1905년 11월 內部 廣濟院 醫師 면관, 1907년 3월 大韓醫院 事務員 임명, 1908년 1월 大韓醫院 主事, 1908년 대한의원 위생시험부 主事
趙東顯	제2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書記 임명, 1900년 7월 內部 廣濟院 書記 임명
安世顯	제2회 급제	1900년 10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1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應遠	제2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899년 6월 內部 病院 醫師 면관, 1899년 9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0년 4월 咸鏡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3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4월 咸鏡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8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1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3년 3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3년 4월 內部 廣濟院 醫師 임명, 1905년 3월 內部 廣濟院 製藥師 임명, 1907년 3월 大韓醫院 藥劑師 임명, 1908년 1월 大韓醫院 助手

계속

이름	졸업	경력
劉哲相	제2회 급제	1901년 10월 京畿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柳興民	제2회 급제	1902년 6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7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皮秉俊	제2회 급제	1899년 5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廣濟院 醫師 임명, 1907년 3월 大韓醫院 醫員 임명, 1908년 1월 大韓醫院 助手
李潤善	제3회 우등	1899년 9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0년 2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高源植	제3회 우등	1902년 8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8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李公雨	제3회 우등	1899년 9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種痘司 技手 임명, 1901년 9월 건책, 1903년 2월 건책
張鎭祖	제3회 우등	1902년 5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10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池義燦	제3회 우등	1900년 10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2년 10월 廣濟院 臨時委員 임명, 1902년 10월 廣濟院 臨時委員 해임
林天湊	제3회 우등	1901년 10월 京畿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1년 10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5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載翊	제3회 우등	1899년 8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沈承薰	제3회 급제	1902년 4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崔鍾萬	제3회 급제	1901년 3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昌烈	제3회 급제	1900년 10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11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永萬	제3회 급제	1902년 8월 慶尙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金寬炯	제3회 급제	1901년 4월 京畿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7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金均明	제3회 급제	1899년 9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6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趙鼎國	제3회 급제	1899년 12월 咸鏡南道 種痘事務委員 건책, 1900년 4월 咸鏡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건책
朴華鎭	제3회 급제	1899년 8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3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6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洪顯相	제3회 급제	1901년 6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慶尙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7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4년 9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건책, 1906년 증두소(種痘所) 위원
李哲宇	제3회 급제	1899년 9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7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건책, 1907년 9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朴遇用	제3회 급제	1900년 4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계속

이 름	줄 업	경 력
朴熙斌	제3회 급제	1900년 3월 咸鏡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0년 4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3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4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4년 12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5년 6월 忠淸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李圭庸	제3회 급제	1905년 2월 咸鏡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金完培	제3회 급제	1906년 10월 京畿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呂圭晁	제3회 급제	1899년 9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10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2년 3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8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劉觀熙	제3회 급제	1899년 6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種痘司 醫師 임명, 1905년 3월 內部 廣濟院 醫師 임명, 1907년 3월 大韓醫院 事務員 임명, 1908년 1월 大韓醫院 主事 임명, 1908년 대한의원 위생시험부 主事
尹哲鉉	제3회 급제	1901년 3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10월 平安南道 鍾痘事務委員 해임
金誦默	제3회 급제	1903년 7월 平安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8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黃海道 種痘事務委員 면관
李敏敎	제3회 급제	1901년 10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6년 5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건책
洪星煥	제3회 급제	1900년 10월 全羅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4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3년 5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朴泰勳	제3회 급제	1899년 9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0년 忠淸南道 種痘所 委員, 1900년 2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2년 6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鄭尙敎	제3회 급제	1902년 3월 全羅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徐邁淳	제3회 급제	1899년 8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0년 2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宋永鎭	제3회 급제	1903년 7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3년 9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4년 9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905년 1월 內部 種痘司 醫師 임명, 1905년 3월 內部 廣濟院 醫師 임명, 1906년 4월 內部 廣濟院 醫師 면관
姜文熙	제3회 급제	1899년 8월 平安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慶尙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1년 6월 慶尙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成樂春	제3회 급제	1899년 8월 慶尙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899년 9월 忠淸南道 種痘事務委員 해임, 1899년 10월 內部 病院 醫師 임명, 1900년 7월 內部 種痘司 醫師 임명, 1902년 7월 內部 種痘司 醫師 건책
金演泰	제3회 급제	1906년 3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면관, 1906년 4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임명, 1907년 2월 江原道 種痘事務委員 면관

주: 경력 확인을 위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官報》와 대조 작업을 거쳤다. 경력은 의료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서술하였고, 시기는 대한제국기로 한정하였다.

## 참 고 문 헌

《官報》; 《독립신문》; 『議奏』; 《帝國新聞》; 『奏本』; 『韓國警察史』; 《漢城旬報》; 《漢城新報》;  
《황성신문》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1971

「履歷書」. 日本 外務省史料館 所藏記號 3. 11. 1. … 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 『延世醫史學』 4권 3호, 2000.

기창덕, 「池錫永 先生の 生涯」. 『松村 池錫永』, 아카데미아, 1994.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3.

김인수 옮김, 『혜론 의사의 선교편지』. 쿰란출판사, 2007.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박형우, 『제중원』. 몸과마음, 2002.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154쪽.

최덕수, 「하라 다카시의 ‘동화정책론’ 연구」.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II)』, 아연출판부,  
2007, 354쪽.

古城梅溪, 「序」. 『種痘新書』, 학부 편집국, 1898.

管谷章, 『日本醫療制度史』. 東京: 原書房, 1976.

『醫制百年史(資料編)』. 東京: 厚生省 醫務局, 1976.



## 국 문 요 약

1896년 출범할 예정이던 종두의양성소는 1897년 봄 사립병원인 찬화병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종두의양성소를 설립, 운영한 이는 일본인 의사 후루시로 바이케이였다. 그는 구식의 우두법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우두접종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우두법을 조선인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종두의양성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후루시로의 양성소 설립은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문화시설의 보급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려는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종두의양성소 입학에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는 않았고, 수업은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은 후루시로가 편찬한 『종두신서(種痘新書)』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두 접종부터 두묘를 보관하는 방법, 즉 우두 시술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기간은 1개월이었지만 대체로 4-8개월 정도 재학하였다. 하지만 교육 기간은 일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을 인정받아 졸업과 동시에 종두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은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을 서울과 지방에 파견하여 우두법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졸업생들은 서울의 외곽에 설치된 종두소(種痘所)와 함께 각 지방의 종두사무위원(種痘事務委員)으로 파견되어 우두를 시술하였다. 나아가 각 지방에 파견된 졸업생들은 그 지방의 종두의를 인가함으로써 우두법의 정착을 도모하였다. 이런 활동은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종두의 양성이 중앙 차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교육의 주체였던 후루시로의 명망도 높아져갔다. 그 명성으로 인해 그는 1899년 설립된 관립 의학교의 초대 교사가 될 수 있었다. 후루시로가 의학교 교사로 임용되면서 종두의양성소는 자연스럽게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의 설립은 서양의학이 우두를 상징처럼 이용하던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정립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두의양성소는 의학체계의 내용이 우두에서 의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활동한 과도기적인 교육기관이었다.

**투고일** 2009. 8. 12.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7.

**주제어(keyword)** 두창(Small pox), 우두(Vaccination), 종두의(Vaccinator), 종두의양성소  
(Training School for Vaccinator), 후루시로 바이케이(Furushiro Baikei), 찬화병원(Chanhwa  
Hospital)